

광양시, '운동주 테마 관광' 인센티브

여행업체·개별관광객 지원 대상 국내외 발차취 연결 상품개발 촉진 관광객 유치 도시 브랜드화도 박차

일제강점기 한글로 쓰인 운동주의 친필 시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보존한 광양시가 운동주 시인과의 관계성, 역사성, 장소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광양시는 운동주의 생애와 문학적 유산을 기리는 '운동주 테마 관광상품'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광양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 운동주의 발차취가 남아 있는 지역을 연결하는 관광상품 개발·운영을 촉진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운동주의 삶과 연관된 국내외 관광지지를 연계한 여행상품을 운영하는 여행업체 및 1인 이상 개별관광객이다. 지원요건은 ▲국내 지정 관광지 1곳 이상 및 국외 운동주 관련 관광지 1곳

이상 방문 ▲광양 내 1박 이상 숙박 및 광양 내 식당 3식 이상 이용 ▲SNS 인증 등이다.

국내 지정 관광지는 '운동주 유교 보존 정병욱 가옥'이며, 주변 관광지로는 섬진강 별빛 스카이라인, 배알도 섬 정원 등이 있다. 국외 관광지로는 중국의 운동주 생가와 모지, 명동학교, 용정중학교, 일본의 릿쿄대학, 도시사대학, 아마가세 구름다리 등이 포함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2식 이상이었던 지원요건을 3식 이상으로 확대하고, 1인당 식비 기준도 7천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강화했다. 또한 광양관광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별관광객의 경우 SNS 인증을 필수 조건으로 포함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행개시일 하루 전까지 사전 계획서 및 일정표를 제출해야 하며, 여행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관광객의 경우 팀 대표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모든 구성원이 광양 외 지역 거주자여야 한다. 여행업체를 통해 운동주 테마 관광상품을 이용하면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지원조건을 충족하면 1인당 1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광양시 관광과 관광마케팅팀(061-797-285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란 관광시 관광과장은 "이번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민족시인 운동주가 한글로 쓴 귀중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보존한 광양을 비롯해 운동주의 숨겨져 남아 있는 발차취를 기리는 한편,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관광도시 이미지를 확대하고 활발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운동주 테마 관광상품 활성화 및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2023년부터 운동주 테마 관광상품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이 사업으로 여행사와 개별관광객 등이 총 11회에 걸쳐 광양을 찾았으며, 후쿠오카 운동주 시 낭송회, 시인 운동주를 기념하는 릿쿄의 모임 회원들을 초청해 2박 3일 팸투어를 진행하는 등 'G-인바운드 관광'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곡성군이 군내 예비고교생 30명을 대상으로 3주간의 호주어학연수를 시행했다.

곡성군, 고교생 해외어학연수 5년만에 재개

30명 3주 일정 호주 시드니로 떠나

곡성군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고교생 해외어학연수가 5년 만에 재개됐다.

곡성군은 지난 9일 곡성 지역 고등학생 30명이 호주 시드니로 3주간 어학연수를 떠났다고 밝혔다. 곡성군미래교육재단에서 주관하는 어학연수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됐다.

어학연수는 총 3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2주간 홈스테이를 통해 현지인들과 호주 문화를 경험하고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어학 수업을 받는다. 방과 후에는 글로벌마인드를 키우기 위해 다양한 액티비티와 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 공연 관람 등의 문화 체험이 예정되어 있다.

또 곡성 출신인 국상훈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

학교 교수와의 특강을 통해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마지막 1주일은 세인트폴 국제학교 기숙사에 머물면서 현지 학생들과 함께 정규수업을 받게 된다.

어학연수 국가도 필리핀(2012-2014년)·미국 하와이(2015-2017년)·미국 샌디에이고(2018-2019년)에 이어 이번에 호주로 선택됐으며, 연수 학생 수도 20명에서 30명으로 늘었다.

곡성군미래교육재단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참여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은 물론 다양한 해외문화 체험을 통해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곡성만의 교육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2020년부터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을 설립해 매년 50억원의 예산을 출연하고 있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2@kwangju.co.kr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 여주시 관광부문 대상 수상 정혜영씨 유튜버 부문 특별상

여주시가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 1호'의 영예를 안았다.

여주시는 최근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2025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에서 관광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한국미디어영상교육진흥원 주관·방송통신위원회 후원의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은 기초지자체의 비전을 담아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종합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이번 시상식에서 정책·축제·관광 등 7개 부문에 15개 지자체가 우수작으로 선정됐으며, 유튜버 부문·홍보대상 부문 등 9개 부문에서도 시상이 이뤄졌다.

여주시가 출품한 'WITH US, WITH YEOSU(위드 유스, 위드 여수)'는 오동도와 향일암, 예술랜드, 수산시장, 이순신광장, 하멜등대 등 여수를 대표하는 관광지를 담은 세 여행객의 이야기다.

드론을 활용해 여수의 자연과 문화유산, 해양 레저스포츠, 야간경관을 광각에 담아 몰입도를 높였으며, 베트남어로 번역해 해외의 마이스(MICE) 산업 유치에 기여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됐다. 이번 시상식에서 유튜버 부문 특별상을 수상한 '여수언니' 정혜영 씨도 눈길을 끌었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지난해 명양시민학교 프로그램 운영 모습.

순천시, 반려동물 '명양시민학교' 다음달 개강

12월까지 3학기제 운영

반려견 사회화 등 다양한 교육

"당담이와 함께 문화센터로 오세요." 순천시가 다음 달부터 반려동물문화센터에서 반려인들을 위한 '명양시민학교'를 운영한다.

'명양시민학교'는 반려동물의 사회화·예절 교육부터 독스포츠, 행동교정까지 반려견의 정서적·신체적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을 다루는 교양 프로그램이다.

'명양시민학교'는 3월부터 12월까지 3학기제로 운영한다. 1학기 정규강좌는 반려견 문제행동 해결을 위한 '스마트트 훈련교실', 반려견과 스포츠 활동을 통해 교감하는 '어질리티 기초반', '독피트니스', '퍼피트레이닝', '펫경험마사지'가 있다.

또한, 일일 특강으로 '수제간식 만들기', '생활 미용 배우기' 등 생활밀착 프로그램과 공공진료소

수의사와 함께하는 '반려동물 건강상담 Q&A' 강좌를 개설해 반려인과 반려견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예정이다.

강좌 신청은 11일부터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 누리집(scanimal.kr)'과 반려동물문화센터 방문을 통해 선착순으로 받는다.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반려인 및 예비 반려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참가하는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과 주요 전염병 예방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고, 동물지원과(061-749-876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23년 8월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가 호남권 최초로 개소된 명양시민학교는 지금까지 총 29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1000여 명의 반려인과 700여 마리의 반려견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보성군 임신부 등 가정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난임·영유아 가정 28일까지 신청

보성군의 출산·양육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눈길을 끈다.

이번 사업은 임신부·난임부부·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가정에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것이다.

보성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와 생산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목표로 미래세대의 건강 증진과 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한 몫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보성군에 거주하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양육 가정(6세 이하, 생후 72개월 미만)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기한은 난임부부와 영유아 가정은 오는 28일까지며, 임신부 가정은 오는 4월 4일까지다.

신청은 임신부 자격 검증 시스템(에코이몰)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자격 검토 후 최종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남도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신선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 연간 48만원(자부담 9만6000원 포함)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



보성군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미 상품을 월 4회(연 16회) 이내, 기호에 따라 개별상품이나 완성형 꾸러미를 주문해 가정으로 배송 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인구소멸 위기 대응에도 힘을 보탬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청 누리집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임산부와 난임부부, 영유아 가정을 위한 건강한 먹거리 지원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록신문춘문예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